

#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매개로 한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전 한 성\*(인천대) · 민 지 훈\*\*(대일외고)

## < 목 차 >

- |                                |                    |
|--------------------------------|--------------------|
| 1. 논의의 전제                      | 3.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 구성 |
| 2.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 개념과 국어교육적 의의 | 4. 결론 및 제언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매개로 하여 국어과의 기존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통합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통합하기 위해 언어의 대기능 체계를 활용하였다. 언어의 대기능 가운데 상호작용적 기능에 해당하는 ‘소망의 언어적 실현’을 통합의 매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양상인 ‘소망의 현재적 실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을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교육적 의의와 내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매체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현하기 위해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활용하였다.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은 인간의 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적 대상에 대한 인간의 정서를 의미하는 심미성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서동의 소망’을 주제로 하는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

\* 제1저자, \*\*공동저자

그리고 드라마 <서동요>를 ‘심미적 텍스트’로 규정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 및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안해 보았다.

핵심어 : 국어교육, 상호작용적 기능, 문법, 문학, 매체언어, 영역 통합

## 1. 논의의 전제

2007년 2월에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매체언어(media language)가 국어교육의 중요한 내용 요소로 도입되었다. 이는 다양한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언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능력 신장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이재기, 2006:12). 이러한 경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인상이다.<sup>1)</sup> 그 결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으로 제시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실질적인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었다.<sup>2)</sup> 이러한 교육 내용의 도입이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목표로 삼고 있음은 주

- 1) 이러한 경향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6가지 핵심 역량 가운데 자료·정보 활용 역량(“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교육부, 2015:3). 또한 이러한 역량은 ‘의미를 형성하는 소통의 기호’라는 언어관을 전제로 하는 매체언어 교육과 연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상술한 경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 2)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때 논란이 되는 것이 ‘기존의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에 내재된 의도를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간에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관점과 기준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간에 ‘승법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sup>3)</sup> 그러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 국어활동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 간의 통합 교육 내용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sup>4)</sup> ‘문법’ 영역과 관련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인 ‘언어에 대한 기호적 관점’<sup>5)</sup>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문학’ 영역과 관련된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역시 일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불러온다. 첫째, 언어의 기호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이 국어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보조해 주는 도구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둘째, 심미적 텍스트와 관련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매체의 발달로 인해 발생 및 변화된 현대사회의 언어문화 양상을 국어교육의 내용 차원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내용 영역 가운데 ‘문법’, ‘문학’ 영역과 관련된 매체언어 교

3) ‘승법적 통합’이란 언어의 다양성과 총체성을 고려하여 각 내용 영역의 교육적 의의를 살리는 본질적인 통합 양상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영역을 표피적으로 수행 차원에서만 결합하는 것을 ‘가법적 통합’이라 한다. ‘승법적 통합’과 ‘가법적 통합’은 이흥우 외(2003)의 논의에서 활용된 용어로서, 이삼형(2000)이 제시한 ‘도킹’과 ‘랑데부’의 의미에 각각 대응하는 용어이다.

4) 이러한 문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교육 내용과 매체언어 교육 내용의 통합을 꾀한 『언어와 매체』 교과서들을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세부 논의는 서보영, 박진희(2019), 참고.

5) 이는 언어를 ‘의미를 형성하는 소통의 기호’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간 생활에서 소통되는 모든 행위와 텍스트는 의미를 추구하며, 이는 언어 양식(mode)과 매체(media)의 두 층위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어교육은 그 자체로서 매체언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정현선(2007:104), 참고.

육 내용이 언어활동과 관련된 매체언어 교육 내용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은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 차원에서 문법과 문학이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교육적 적합성에 대한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sup>6)</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을 논의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승법적으로 통합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이 때 논의에서 다룰 국어교육의 내용은 ‘매체언어’의 교육 내용과 ‘문법’,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용 영역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매개’로서 언어가 지니고 있는 ‘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의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둘째, 현재 매체언어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 때 논의를 위한 ‘체제’로는 향가 <서동요>와 이를 매체적으로 ‘변환’<sup>7)</sup>시킨 동명의 드라마 <서동요>를 텍스트로 설정할 것이다.<sup>8)</sup>

## 2.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 개념과 국어교육적 의의

### 2.1.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 개념과 활용 양상

- 6) 실제로 문법과 문학 영역이 과연 국어 교육의 내용 영역으로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논하면서 기존의 6영역 체제를 활동 중심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영역 체제로 바꾸고 ‘국어 지식(문법)’과 ‘문학’의 영역을 자료로서 4영역 체제에 포함시키자는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제시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인제 외(2005:144-147) 참고.
- 7) ‘변환’이란 문자 그대로 원래 상태와 다르게 변하여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매체 변환’이란 용어는 슈넬(R. Schnell)이 구분한 ‘전용(Transposition)’과 ‘변형(Trasformation)’의 개념을 원용한 것임을 밝힌다.
- 8) 이 연구는 ‘언어의 기능’ 및 ‘국어 활동과 문법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문법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안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주세형(2005a), 주세형(2005b)의 논의에 근간하였음을 밝힌다.

## (1) 통합의 매개로서 작용하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 : 소망의 언어적 실현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상(像)은 ‘통합적 국어교육’이며, 이는 언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언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란 ‘모어 화자의 실제 언어 수행 방식을 따르는 관점’으로 정의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전제 설정은 국어교육의 내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층위 및 방식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주세형, 2005b:147). 본고에서 목표로 하는 통합의 양상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내용 영역 간의 통합’이며, 구체적인 대상의 영역은 ‘매체언어’와 ‘문법’, ‘문학’ 영역이다. 이러한 내용 영역 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속하는 국어교육의 내용들을 매개할 수 있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능(function)’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능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형식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을 의미한다.<sup>9)</sup> 이러한 기능의 개념을 영역 통합의 매개로 설정한 것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을 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이란 언어를 담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의미 내지 기능의 실현으로 보는 관점이다.<sup>10)</sup> 이를 통해 모어 화자인 학습자에게 제공할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안할 때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 맥락을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의 언어

9) 이러한 기능 개념은 영국의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이어받아 호주와 영국의 언어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주세형, 2005b: 156). 때문에 영국과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능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 근거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할 수 있는 고등 정신 능력’을 강조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향점’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때부터 강조된 것이기도 하다 (박삼서.이인제 외, 2002).

10) 주세형(2005b:256-265)에 따르면, 이는 담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의미 내지 기능을 언어에 ‘부가’ 또는 ‘후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어는 단순한 차원의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언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의미와 경험을 구성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역할인 ‘의미의 구성 및 소통’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국어교육의 내용적 지식이 구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상황 맥락’과 ‘언어의 역할’에 대한 개념은 ‘사용역(register)’과 ‘대기능(macrofunction)’이라는 용어로 변환해 볼 수 있다. ‘사용역’과 ‘대기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용역’과 ‘대기능’의 정의<sup>11)</sup>

<p><b>1. 사용역(registe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인간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세 개의 대기능(macrofunction)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상황 변이형</li> <li>· 모어 화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개별 상황에 직면하여, 다양한 언어활동을 하면서 진화시키는 상황의 유형</li> </ul> <p><b>2. 대기능(macrofunc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개별 사용역에서 언어활동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li> <li>· 언어활동을 기능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본 틀</li> </ul>
---

위의 [표 1]에서 언급한 대기능은 Halliday(1994:36), Eggins(1994:3장), Tompson(1996:28) 등 기능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대두된 논의이다. 기능주의 언어학자들은 아동 언어와 성인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이 큰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성인 모어 화자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성인 모어 화자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발화 자체의 형식과 기능의 관계를 다룰 것이 아니라, 기능체계의 틀에서 각 발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는 개념을 전제한 것이다. 그 결과 도출된 기능체계가 ‘대기능’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주세형(2005b:168-172)에서 재인용함.

[표 2] 대기능의 종류<sup>12)</sup>

1.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 ‘담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언어화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으로 실현되는 기능
2. **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 ‘청자(독자)에 대한 태도’를 언어화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으로 실현되는 기능
3.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 : ‘담화에서 사용된 언어의 역할’을 언어화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으로 실현되는 기능

본고에서는 영역 통합의 매개로 언어의 대기능 가운데 ‘상호작용적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의 [표 2]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적 기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대상에 대한 태도’이다. 태도(態度, attitude)는 ‘어떤 사물에 대응하는 자세 혹은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동작, 표정 등 외부에 나타난 몸가짐’이 기본 어의지만, 미학에서는 ‘미적 대상에 대한 주체의 지각’ 측면으로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미학에서의 태도 논의는 언어, 특히 문학의 측면으로 도입될 때 ‘작가 또는 독자가 미적 대상에 대해 보이는 관점 혹은 정서’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이는 언어 텍스트를 해석할 때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태도의 개념, 즉 ‘작가 또는 독자가 미적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 혹은 정서’라는 정의를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는 ‘소망의 언어적 실현’을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소망의 언어적 실현’을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망은 지니고 있는 기본 어의가 “어떤 일을 바랍, 또는 그 바라는 것”<sup>14)</sup>이며, 이는 대상(어떤 일)에 대해 ‘바랍’이라는 관점 혹은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소망의 ‘언어적 실현’은 소망이 지니고 있는 태도로서의 특징을 전제로 할 때 ‘태도의 언어화’라는 상호작용적

12) Halliday(1994:36), M.A.K.,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주세형(2005b:176)에서 재인용함.

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740-741) 참고.

14) 국립국어원 편(2008), 참고.

기능의 세부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때 ‘소망의 언어적 실현’이라는 대기능은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미성의 개념은 미학, 문학에서 정의되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느끼는 체험인 ‘미적 체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심미성의 개념이 다르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미성의 개념을 하나로 규정하기보다는 심미성의 개념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미적 대상에 대한 관점 혹은 정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태도’의 개념을 ‘심미성’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심미적 텍스트’를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관점 혹은 정서(태도)가 형상화된 텍스트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태도를 중시하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은 심미적 텍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은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 구성을 위해 제재로 삼을 향가 <서동요>와 드라마 <서동요>는 상기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선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향가 <서동요>의 중심 내용은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사랑’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서동의 소망을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후 논의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드라마 <서동요>는 이러한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을 ‘매체 변환’의 과정을 거쳐 영상언어로 재현한 것이다. 때문에 드라마 <서동요>에서도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이 지니고 있는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사랑’과 이를 이루기 위한 서동의 소망이 영상언어로 나타나게 된다. 즉, 향가 <서동요>와 드라마 <서동요>는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사랑’과 이를 이루기 위한 서동의 ‘소망’을 ‘언어’로 실현한 ‘심미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를 제재로 설정한 것은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려는 본고의 목적과 부합된다.<sup>15)</sup>

15) 물론, 통합적 국어교육의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향가 <서동요>가 적절한

언어의 대기능 체계는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과 실제 생활에서 수행되는 언어의 역할을 모두 함의하며, 이로 인해 언어의 대기능 체계를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통합하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대기능 가운데 ‘상호작용적 기능’에 주목하여, ‘소망의 언어적 실현’ 개념을 내용 영역의 통합적 매개로 설정하고자 한다. 매개로 설정된 ‘소망의 언어적 실현’은 앞으로 제시될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안하는 기본 원리가 될 것이다.

## (2) ‘소망의 언어적 실현’으로서 ‘소망의 현재적 표현’

여기서는 ‘향가 <서동요>의 주술성’과 ‘현재 시제의 다의성’을 대상으로 하여, ‘소망의 언어적 실현’을 실제 언어생활에서 구현하는 방식인 ‘소망의 현재적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향가 <서동요>는 『삼국유사』의 기이(紀異)편 「무왕조(武王條)」에 실려 전한다. 백제의 서동(薯童, 무왕의 아명)이 신라 진평왕 시기에 지었다고 한다. 무왕이 어릴 때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善花公主)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사모하던 끝에 중처럼 머리를 깎고 신라 서울에 와서 마(薯)를 가지고 성 안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향가 ‘서동요’를 지어 그들에게 부르도록 하였다. 이 노래가 대궐 안에까지 퍼지자 왕은 마침내 공주를 귀양 보내게 되었다. 서동이 길목에서 귀양가는 공주를 기다리다가 함께 백제로 돌아가서 그는 임금이 되고 선화는 왕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익산 미륵사(彌勒寺)의 연기(緣起) 설화이기도 하다(서철원, 2006:208-209).<sup>16)</sup>

것인지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문법 교육, 매체언어 교육 각각의 관점에서 <서동요>의 교육적 가능성을 타진할 때에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도하는 통합적 국어교육에 부합하는 텍스트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과 ‘매체 변환’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은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6) 『삼국유사』에서 <서동요>는 세 구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대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넷으로 나누고 있다. 김종진(2004:247)에 따르면, 『삼국유사』 무왕조의 「서

<서동요>를 포함한 『삼국유사』 안에 소개 14수의 향가는 대체로 주술, 불교, 화랑 등의 요소와 관련되어 이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바로 ‘향가의 주술성’이다. 주술이란 초자연적 존재에 기대거나 신비한 힘에 기대어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길흉을 점치고 화복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주술성이란 비밀스럽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과 관련된다(이승남, 2007:83). 당시 신라인들은 향가가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으며, 향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인간의 힘이 아닌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신비한 힘에 기대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17)</sup> 신라인들에게 주술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인간의 대응 또는 해결 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임기중(1981:262)은 『삼국유사』에 소개하는 향가들 중 그 창작이나 가창 발상의 계기가 명시되어 있으면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작품은 예외 없이 주가적인 효험이 나타난 노래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향가의 주술성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서동요>의 주술성은 서동이 향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 향가의 효험으로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주술성의 1차적 층위인 향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윽히 일어 두고  
 맛등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sup>18)</sup>

동요」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善花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17) 향가의 주술성은 『삼국유사』 4권 감통편 월명사도술가조의 “羅人尙鄉歌者尙矣。蓋詩頌之類歟。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라는 구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18) <서동요>의 해석은 이승남(2007:80) 참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향가 텍스트의 언어적 국면은 선화공주라는 인물이 주체가 되어 맛둥이라는 객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1행과 3행에는 행위나 사건의 주체와 객체가 드러나 있고, ‘남 그윽히 얼어 두고’와 ‘밤에 몰래 안고 가다’라는 2행과 4행 역시 주체의 객체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승담과 연계하여 고려해보면, <서동요>가 지닌 주술성을 도출할 수 있다. <서동요>의 전승담 가운데 향가 텍스트의 행위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 ①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왔다.
- ② 아이들에게 마를 주고 가요를 지어 부르게 했다.
- ③ 향가 <서동요>
- ④ 동요가 장안에 퍼져 궁중까지 알려지자 모든 신하들이 탄핵하여 공주를 遠方에 유배시키도록 했다.
- 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 ⑥ 도중에 서동이 나와서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자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공연히 미덥고 흡족했다.
- ⑦ 그래서 따라가다가 몰래 통하였으므로 그런 후에 서동이라는 이름을 알았고, 동요의 효험(童謠之驗)을 알았다.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전승담에서 향가의 주술성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은 바로 ⑦의 ‘동요의 효험(童謠之驗)’이다. 향가와 전승담의 연계를 통해 <서동요>는 ‘자기의 소원을 향가로서 부르되 그 희망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불러버리는 태도를 가진 노래로서 소원 성취의 마력을 갖게 되었으며’(이능우, 1956:211), ‘주가적(呪歌的) 성격을 띤 동요, 참요적(讖謠的) 성격을 지닌 민요’(김승찬, 1982:64) 등 주술성을 지닌 가요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동요>의 주술성은 앞에서 언급한 향가 텍스트의 언어

19) 이승남(2007:80)에서 재인용함.

적 국면에서 더욱 심도 있게 부각된다. 즉, 단순히 전승담과의 연계만으로 인해 <서동요>가 지니고 있는 주술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향가의 노랫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언어적 특성을 통해서도 주술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4행에서 나타나는 ‘현재 시제’가 ‘다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누가 보아도 동일하고,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언어는 고민이나 선택의 여지없이 정확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김봉순, 2007:447). 이러한 통념은 국어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문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집필된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수록된 시제와 현재 시제의 교육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수록된 시제와 현재 시제의 개념<sup>20)</sup>

<p><b>3. 시간 표현</b></p> <p>◎ 시제</p> <p>.개념: 상황이 발생한 시점을 표시하는 문법 요소</p> <p>.종류: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떤 관계에 있는냐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p> <p>(3) 현재 시제</p> <p>.개념: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p> <p>.실현: 서술어가 동사이고 ‘-다’, ‘-구나’, ‘-군’ 등 일부 어말 어미가 쓰일 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과 관형사형 어미 ‘-는-’ 이 쓰임. 서술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쓰인 경우, 혹은 어말 어미가 ‘-다’, ‘-구나’, ‘-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를 표시하는 표현이 따로 나타나지 않음.</p>
---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제와 현재 시제의 개념을 가르치는 일은 규범성의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문법 지식’이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는 뜻이다. 학습자들은 위에 언급된 시제와 현재 시제의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문장 단

20) 최형용 외(2019:80-81) 참고.

위의 언어를 표현할 때 이와 관련된 비문을 생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법 지식이 가지는 이러한 규범성은 전통적으로 국어교육 내에서 문법교육이 지녔던 교육적 가치이기도 하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시제 및 현재 시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영어의 시제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한 개념이기 때문에 국어가 지니고 있는 시간 표현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 상기한 시제의 개념은 Jespersen의 시제 체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Aristoteles 이래 서양철학에서 다루어지는 1차원적인 물리적 시간관을 함의하고 있다(임철성, 1998:251-253). 이는 동양에서 견지하고 있는 시간관과 큰 차이를 보이며, 국어의 시간 표현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시제의 개념을 지나치게 물리적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시제 표현에 담겨 있는 필자(화자)의 의미를 도외시하였다. 언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결과인 의미를 반영한다. 모든 언어 표현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의도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필자 또는 화자가 현재 시제를 통해 언어적 표현을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바탕으로 한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김봉순, 2007:448).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는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기술된 문법교육의 내용인 시제와 현재 시제의 개념은 이러한 ‘의미’를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국어교육의 목적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제 및 현재 시제의 개념을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철학에서 견지하고 있는 시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시제가 지니고 있는 ‘다의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시간을 마음의 구성물로 본다. 시간은 자연계의 본질적인 성질, 즉 모든 현상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변화에 대해 시간이란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양의 시간의식에서는 모든 사건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

21) 문법교육이 지니고 있는 규범성 차원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성영(1998:229-232) 참고.

나며 시간 속에서 사건(삶)을 파악하는 서양과 달리, 사건들의 흐름이 곧 시간이며 사건(삶) 속에서 시간을 파악한다(임철성, 1998:256). 고영근.구본관(2008:379-408)에 따르면, 국어에서는 이러한 동양철학의 시간관을 전제로 하여 삶이나 시간에 관련되는 문법 범주를 필자 또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앎을 나타내는 ‘서법’, 과거.현재.미래와 같은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시제’, 시제에 속하여 있으면서 그 나름의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동작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필자(화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앎인 ‘의미’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법’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제’와 ‘동작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시제는 ‘필자 또는 화자가 발화시나 경험시를 기준축으로 삼아 그 나름대로 앞뒤의 시간을 구체화하는 문법 범주’로 재기술할 수 있다. 이 때 시간은 공인된 시간을 나타내는 공시간(public time)과 사시간(private time)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개념을 시간성(temporality)이라고 한다. 국어의 시제는 사시간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서법의 하위 범주인 직설법과 회상법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볼 때 국어의 시제는 필자 또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앎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즉 서법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이는 현재 시제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22)</sup> 현재 시제는 발화시 이후의 사건이 확정적일 때 사용되기도 한다. 미래적인 사건이라도 필자 또는 화자가 그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앎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무표적 실현’ 등의 현재 시제 형태가 사용된다.<sup>23)</sup> 예를 제

22) 신언호(2006)은 현재 시제의 본질적 의미를 ‘현재 시간 영역에 상황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는 관계를 현재 시제의 심리적 시점 이동을 통해 ‘미래의 대응’과 ‘역사적 현재’로 정리한 바 있다. ‘미래의 대응’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여 쓰이는 용법을 나타내고, ‘역사적 현재’란 과거 상황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것으로 필자 또는 화자가 문제의 사건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시제의 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시제가 다의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2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는 현재 시제의 형태를 ‘동사’의 차원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과 관형사형 어미 ‘-는-’, ‘형용사 및 서술격 조사’의 차원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무표적 실현’으로 세분하여

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가) 우리는 모래 배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간다.(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  
ㄴ-’ 사용)

(나) 우리는 곧 출발합니다.(현재 시제의 무표적 실현)

위의 예시처럼, 향가 <서동요>에서도 현재 시제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서동요>의 주술성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선화공 주님은/남 그윽히 열어 두고/맞동방을/밤에 몰래 안고 가다.”에서처럼 ‘밤에 몰래 안고 가다’라는 진술은 현재 시제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서동이 향가 ‘서동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할 당시는 선화공주와 결연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공인된 시간을 뜻하는 공시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겠-’ 등의 미래 시제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서동은 노랫말을 만들 때 공시간의 개념을 도외시하고 현재 시제의 형태를 선택했다. 그러한 이유는 서동이 향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화공주와의 결연’이라는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확실성 있는 앞’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가 <서동요>는 자기의 소망을 향가로서 부르되 그 희망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불러버리는 태도를 가진 노래로서 소망 성취의 마력을 갖게 되었으며, 서동이 신분의 차이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선화공주와 결연을 맺는 데 큰 주술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소망의 언어적 실현’으로서 ‘소망의 영상적 재현’<sup>25)</sup>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 지식’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실제 사용의 측면에서 많이 실현되고 있는 경우를 범주화한 결과이다. 본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시제의 무표적 실현은 형용사 및 서술격 조사의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24) 고영근·구본관(2008:401)에서 재인용함.

25) 드라마 <서동요>로의 매체 변환 자체가 향가 <서동요> 및 그 전승담에 대해 지니고 있는 독자의 시.공간적 거리감(조희정, 2006:65)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망의 영상적 재현’은 ‘청자(독자)에 대한 태도’를 언어

여기서는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의 ‘매체적 변환’ 텍스트인 드라마 <서동요>를 대상으로 하여, ‘소망의 언어적 실현’이 영상언어의 측면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상언어가 지니고 있는 표현 방법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매체언어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텍스트의 다양한 ‘매체 변환’을 경험하고 있다. ‘변환’이란 문자 그대로 원래 상태와 다르게 변하여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매체 변환에 대해서는 Schnell이 구분한 ‘전용(Transposition)’과 ‘변형(Trasformation)’의 개념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전용이란 ‘소재, 갈등 상황 또는 플롯의 전이’가 드러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변형이란 ‘어떤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형식 언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를 텍스트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텍스트의 전용’은 원래 텍스트의 특성과 구조, 모티프 등을 보존하면서 다른 텍스트 상황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텍스트의 변형’은 해당 텍스트가 모티프는 공유하면서 다른 새로운 텍스트로 변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윤여탁, 2008:183).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할 때, 드라마 <서동요>는 ‘전용’과 ‘변형’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가 <서동요>와 전승담에서 서사 구조와 모티프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 ‘전용’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서동이 백제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겪는 과정 및 갈등 등 드라마에 나타나는 새로운 내용을 통해 ‘변형’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 <서동요>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매체 변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서동요>와 같이 ‘매체 변환’을 거친 드라마 텍스트를 국어교육의 장(場)으로 도입하는 일은 학습자들에게 ‘영상언어’<sup>26)</sup>에 대한 교육을 할 수

---

화하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여기서의 영상 언어는 동영상 뿐 아니라, 정지된 이미지의 의미 작용을 뜻하는 시각 언어 일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한다.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영상언어는 말, 글, 이미지, 몸짓, 음향 등 서로 다른 언어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한 편의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복합언어 양식(multimodality)’의 대표적인 방식이다(정현선, 2007:106). 이러한 영상언어의 의미 작용 및 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체 변환’의 개념을 토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매체 변환’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상관성을 지니는 향가 <서동요>, 그와 관련된 전승담, 드라마 <서동요>의 비교 분석은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로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향가 <서동요>, 전승담, 드라마 <서동요>의 비교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재현(representation)’이다. 최미숙 외(2008:369)에 따르면, 특정 인물, 집단, 사회적 사건 등은 매체언어로 표상될 때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시각, 전달하는 시간의 길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수용자에 대한 인식, 미디어 기술에 따른 언어와 기호의 표현 차이 등에 따라 각 매체언어별로 달리 제시된다고 한다. 이 때 매체언어의 제시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총 55화로 구성된 드라마 <서동요>에서 향가 <서동요>와 전승담을 재현한 부분은 4화 정도이다. 우연한 기회에 신라 왕궁에 들어갔다가 선화에게 한눈에 반해 좋은 만남을 가졌던 서동은 4회에서 선화의 계획으로 인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선화의 정체가 신라의 공주임을 극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데 서동은 이 사실을 선화가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자신을 속이고 조롱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장안에 선화공주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있다는 노래를 퍼뜨림으로써 선화에게 복수를 하려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라마의 대본 <S#33. 범생의 공방>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서동의 복수 계획은 선화에게 발각되면서 무위로 돌아가고, 오히려 선화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서동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이는 대본 <S#35. 장터 아소지 점포>, <S#36. 장터일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문자언어 텍스트와 이를 ‘매체 변환’하여 영상언어로 재현한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영상언어 차원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때 세부적인 비교 분석은 ‘재현 대상’의 측면과 ‘재현 방식’의 측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재현 대상의 구체적인 요소로는 인물, 사건, 배경, 플롯 등을 들 수 있으며, 재현 방식의 구체적인 요소로는 영상(이미지), 화면 구도, 카메라 문법, 음악, 음향, 편집 등을 들 수 있다.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의 측면에서 볼 때 노래를 퍼뜨리는 주체는 서동이며, 이는 서동의 주체적인 의지가 발현된 결과이다. 그 근거로 앞에서 논의한 ‘소망의 현재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서동의 소망을 들 수 있다. 또한 향가 <서동요>의 전승담에 수록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해당되는 전승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왔다. 그가 서울의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자, 여러 아이들이 기꺼이 따랐다. 그는 마침내 이런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생략) 이 동요가 장안에 퍼져 궁중까지 알려지니 모든 신하들이 탄핵하여 공주를 시골로 유배시키도록 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귀양가는 길에 서동이 나와서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공연히 미덥고 즐거웠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서로 통하게 되었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가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후략)<sup>27)</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의 이야기는 대략 일치한다. 그러나 드라마 <서동요>의 내용은 이와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서동이 노래를 퍼뜨리겠다는 마음을 지니게 된 계기는 선화공주가 스스로의 정체를 극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또 노래를 퍼뜨리는 행위도 서동이 아니라 오히려 선화공주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동은 선화공주와의 관계에서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선화공주와의 관계에서 서동이 보이는 행동들은 대척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드

---

27) 임기중(2002:31)에서 재인용함.

라마 <서동요>에서 두 인물이 나누는 대사에서 잘 드러나며, 해당 대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 : 온 장터에 다 붙일 테니.. 두고 봐!

선화 : 뭘?

선화 : 뭔데? 나도 같이 붙이자.

선화 :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선화 : 서동방을 밤에 안고 간다

선화 : 이걸 장안에 퍼뜨려서! 날 망신주고 복수하려고 했다고?

장 : ……

선화 : 넌 생각은 시시한데 하는 짓은 재밌구나.

장 : 날 속였잖아!

선화 : 그게 알려준 거야. 내 방법으로..

장 : 그건 알려준 게 아니라 앞으로 까불지 말라는 거잖아. 공주한테.

선화 : 그래서.. 겨우 생각해 낸 게 난 안 만나고, 나 괴롭힐 꿈을 꾸 거야?

장 : ……

선화 : 정말 시시하구나, 너.

장 : 아냐. 나 안 시시해.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향가 <서동요>와 관련 전승담, 드라마 <서동요> 간에 존재하는 인물의 차이는 ‘재현 방식’의 측면에서 행하는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문자언어를 매체로 하는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에서는 ‘선화 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의 서울에서 마를 팔며 거짓 노래를 지어 유포시킨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하는 형식을 띤다. 그러나 영상언어를 매체로 하는 드라마 <서동요>에서는 장터를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선화 공주와 이를 말리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서동의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물의 ‘행동’, 즉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표정’은 전승담과 드라마 간에 존재하는 인물 요소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sup>28)</sup> 또 이 때 드라마에서 흐르는 ‘음악’도 인물의 차

이를 부각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며, 카메라의 시선을 드라마를 시청하는 수용자의 시각에 일치시키는 ‘카메라 문법’은 수용자로 하여금 등장 인물의 감정에 동화되도록 유도한다.<sup>29)</sup> 이러한 제반 요소는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보이는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 준다.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는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의 개념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문자언어의 경우, 사건 기술과 대상 묘사를 서술자의 진술을 빌어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반면, 영상언어의 경우는 사건 기술과 대상 묘사를 이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행한다(도정일, 1998:368-369).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드라마 <서동요>의 재현 양상이 원작 텍스트라 할 수 있는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의 내용에 대해 변화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드라마 <서동요>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작가가 지니고 있는 원작 텍스트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sup>30)</sup>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매체 변환’을 기획한 드라마의 극본 작가가 지니고 있는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드라마 <서동요>의 극본 작가가 지녔던 집필 의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드라 공식 홈페이지(<http://tv.sbs.co.kr/seodong/>)에 수록된 ‘드라마 <서동요> 제작진의 인터뷰’를 주목하고자 한다. 자료의 내용 가운데 극본의 집필 의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28) 실제 이러한 ‘표정’과 ‘행동’은 드라마 대본의 지문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9) 주창운(2003)에 따르면, 이러한 카메라 문법은 영상언어의 도상성(iconicity)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영상언어가 실제 대상의 외양을 ‘모방해내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이미지 생산자는 영상언어의 도상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호화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자의 감성을 통제한다. 따라서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감정과 시각을 연결하는 특성을 지닌다.
- 30) 윤여탁(2008:218)에 따르면, 원작 텍스트에 대한 태도는 원작 텍스트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 원작 텍스트에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태도, 원작에서 모티프나 제목, 인물 등을 새롭게 가공되어질 원료 정도로 가져와 현재의 경험이나 맥락과 결부시켜서 자유롭게 확장하여 재창작하고자 하는 태도로 세분할 수 있다.

Q : 드라마 서동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 서동요라는 드라마는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갈등이 심하고, 당시 백제와 신라도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 적국의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렬한 러브스토토리가 진행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Q : 서동요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들은요?

A : 첫 번째로는 러브스토리를 많이 전해드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왕의 이야기인데 이전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만 왕이 되는 이야기를 주로 봤었는데, 서동요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왕의 성공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밀줄 - 연구자)<sup>31)</sup>

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드라마 <서동요> 극본 작가의 의도는 서동과 선화공주 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서동과 선화 공주 간에 존재하는 ‘애정’이라는 심미적 요소를 심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에 제시된 ‘인물’의 요소를 드라마에서 변화시켜 영상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드라마 <서동요>의 극본 작가가 원작 텍스트에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과 연관된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문학적 장치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기보다 문학이나 예술 일반의 기법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자동화된 일상적 인식의 틀을 깨고 낯설게 하여 사물의 본래 모습을 찾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문학적 기법이다(한용환, 1999:92-94). 논의에서 언급된 ‘인물’요소의 변화는 이러한 ‘낯설게 하기’의 정의에 부합한다. ‘매체 변환’된 드라마 <서동요>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독자(청자)들은 서동과 선화공주 간에 존재하는 애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부각시키려는 극본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물’의 요소가 변

31) 이 자료는 드라마 <서동요>의 공식 홈페이지(<http://tv.sbs.co.kr/seodong/>) 가운데 ‘제작진’ 항목에 수록된 김영현 극본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검색일: 2019. 9.10.)

화된 영상언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영상언어의 표현 방식은 ‘매체언어의 형상성’과 긴밀히 관련된다. 매체언어는 추상적 사고를 구체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언어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구체화되는 사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sup>32)</sup> 이것은 ‘형상성(形象性)’의 측면에서 매체언어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표현 효과를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을 ‘매체언어의 형상성’이라 부를 수 있다. 드라마 <서동요>의 영상 표현 방식은 극본 작가가 지니고 있는 의도, 즉 극본 작가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체언어의 형상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 2.2.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의 국어교육적 의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으로서 ‘소망의 언어적 실현’으로서 ‘소망의 현재적 표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으로서 소망의 언어적 실현 양상의 예로 제시한 ‘소망의 현재적 표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이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왜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국어교육의 목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의 목적(Aim)은 ‘국어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접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이라 할 수 있다. 김대행(1997)은 국어교육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영국의 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무 작업팀이 정리한 영어교육의 목적을 주목한 바 있다. 이는 언어가 지닌 다양한 특성, 즉 언어의 복합성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개인적 성장’, ‘범교과적 도구’, ‘성인적 실용’, ‘문화 유산’, ‘문화 분석’의 다섯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김대행,

32) 최병우(2000:16)은 “같은 시각적 기호 형식에 기초한 매체언어라 하더라도 영화로 대하게 되는 『안네의 일기』와 글로 대하게 되는 『안네의 일기』는 그 느낌이나 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감상의 사고 내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1998:19-20). 김대행(2002a:10-18)은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을 국어교육의 목적으로 수용하면서 ‘개인의 성장’, ‘범교과적 도구능력’, ‘성장 후의 실용’, ‘문화의 계승·창달’, ‘주체적 문화분석’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국어교육의 목적이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때 이를 준거로 하여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으로서 ‘소망의 현재적 표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 양상이 지니고 있는 국어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적 문화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는 향가 <서동요>에 나타난 ‘소망의 현재적 표현’을 통해 서동이 어떤 의도를 지니고 노래를 만들어 유포시켰는지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호오(好惡)의 양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매체 변환’을 통해 ‘재현’되는 드라마 <서동요>의 영상언어 표현 방식들을 통해 작가가 어떤 의도로 기존의 이야기 내용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해 낼 수 있다.

둘째, ‘성장 후의 실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는 ‘소망의 현재적 표현’에 사용된 현재 시제의 기능을 실제 언어활동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 ‘재현’되어 나타나는 여러 영상언어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다른 영상언어를 비판적으로 수용 및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실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개인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는 ‘소망의 현재적 표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의 개념과 양상을 학습함으로써 현재 시제의 새로운 기능과 영상언어가 지니고 있는 매체언어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이를 수 있는 인지적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향가 <서동요>와 드라마 <서동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산해 봄으로써 향가와 드라마에 나타나는 ‘소망’에 대해 자신만의 언어적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이를 수 있는 정서적 성장을 의미한다.

### 3.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 구성

국어교육은 언어인 국어를 교육하는 일이다(이용주, 1995:54). 따라서 김대행(2002b:20)은 그 내용의 틀은 국어 교과 자체의 특질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국어 교과 자체의 특질은 교육의 대상인 언어의 속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체계(system)이자, 행동(behavior)이며, 문화(culture)이다. 이러한 언어는 소통(communication)의 매재(媒材)이자, 사고(thinking)의 도구이며, 문학(literature)의 질료로 기능한다.<sup>33)</sup> 이와 같은 언어의 본질적 정의와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의 속성을 규명해보면, 과제(task), 사실(fact), 정체성(identity), 의미(meaning)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국어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어능력’은 바로 이 네 가지 언어의 속성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국어능력이란 언어 구사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언어로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능력이고, 언어를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는 능력이자, 언어를 통해 ‘의미’를 수용하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네 가지 속성은 각각 ‘수행’, ‘지식’, ‘태도’, ‘경험’이라는 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로 대응한다. 국어교육은 과제로서의 국어이므로 언어를 ‘수행’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고, 사실로서의 국어이므로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다. 또한 정체성으로서의 국어라는 점에서 본다면, ‘태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국어능력의 질을 높이며, 국어가 의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험과 반응을 통해서 ‘경험’을 심화시키고 질서화함으로써 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김대행, 2002b:24-25).

본고에서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의 개념과 양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이 때 교육 내용은 ‘지식’, ‘수행’, ‘태도’, ‘경험’ 범주에 따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네 범주가

---

33)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 국어교육의 내용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대행(2002c) 참고.

내포하고 있는 언어의 속성을 준거로 하여 앞에서 제시한 ‘소망의 현재적 표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의 개념과 양상에서 그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 3.1. 지식 범주

김대행(2002b:24)에 따르면, 지식은 언어의 속성 중 사실(fact)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준거로 하여 ‘소망의 현재적 표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에서 언어의 사실(fact) 속성에 해당하는 ‘현재 시제의 기능’과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 ‘영상언어의 인물 표현 방식’이라는 국어교육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소망의 현재적 표현’에서 현재 시제가 수행하는 기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현재 시제는 필자 또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앎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즉 서법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지니며, 그 가운데 하나로 필자 또는 화자가 지니고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소망’을 현재 시제의 형태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지식’의 차원으로 재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식 범주 활동134)

<p>◎ 현재 시제의 기능 알기</p> <p>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가 언어를 통해 어떤 사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인 ‘발화시’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p>
---

34) 여기서는 ‘시제’ 범주에 대한 문법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현재 시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 ‘시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성취 기준을 찾아 볼 수 있다. [5-문법-(3)] 성취 기준과 관련된 해설에서는 “시간 표현 방식이 단지 시간을 드러내지만 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특한 표현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문법 지식 활동과 국어사용 활동의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인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러한 현재 시제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도 말하는 이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시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태도나 정서를 상대방에게 능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예1) 나는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100점을 맞는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사용)  
 예2) 우리 팀은 내일 경기에서 꼭 이긴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사용)  
 예3) 너는 미래의 기둥이다. (현재 시제의 무표적 실현)

앞에서 논의한 ‘소망의 영상적 재현’ 개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합양식성(multimodality)’<sup>35)</sup>이라는 매체언어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영상언어를 국어교육의 장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변환’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매체 변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드라마 <서동요>를 원작 텍스트인 향가 <서동요> 및 그 전승담과 비교한 결과, 작가의 ‘의도’에 의해 ‘인물’의 요소가 원작 텍스트와 다르게 ‘재현’된 양상을 영상언어의 여러 표현 방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원작 텍스트인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매체언어의 형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사실’이라는 언어적 속성에 부합하는 내용은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와 ‘영상언어의 인물 표현 방식’이다. 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지식’의 차원으로 재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35) 여기서 사용된 ‘복합양식성’이란 이미지 외에 다양한 ‘의미화 양식’이 통합된 영상언어의 특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흔히 영상언어라 하면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미지 이외에도 말, 몸짓, 음악 등 다양한 의미화 양식이 통합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정현선(2007:104) 참고.

## [표 5] 지식 범주 활동2

### ◎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 정리하기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는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문자언어의 경우 사건 기술과 대상 묘사를 서술자의 진술을 빌어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반면, 영상언어의 경우는 사건 기술과 대상 묘사를 이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 ◎ 영상언어의 인물 표현 방식 정리하기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는 문학 작품을 드라마로 바꿀 때 스스로의 ‘의도’에 따라 여러 부분을 원작과 다르게 변화시킨다. 그 중 특히 ‘인물’의 모습이 원작과 다르게 나타나는 드라마를 흔히 볼 수 있다. 달라진 ‘인물’의 모습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드라마의 배경 음악, 카메라의 시선 등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작가가 무엇 때문에 원작과 드라마의 내용을 다르게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 3.2. 수행 범주

수행은 언어의 속성 중 과제(task)와 연관된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이 있으면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있으며, 언어가 주어지면 언어로나 행동으로 그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 즉, 언어 구사 자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김대행, 2002b:23). 이 부분에서 논의할 대상은 학습자가 논의의 ‘제재’인 향가 <서동요>와 드라마 <서동요>를 비판적으로 수용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제라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구안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앞에서 구안한 ‘지식’ 범주의 내용이 활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가 <서동요>를 제재로 한 학습활동은 크게 ‘노래에서 현재 시제로 표

현된 부분 찾기’와 ‘이를 미래 시제로 바꾸고 서로 비교해 보기’, ‘서동이 노래 가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현재 시제로 표현한 이유를 말해보기’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이 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식은 앞에서 제시한 ‘현재 시제의 기능’이다. 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활동의 형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수행 범주 활동1

◎ <서동요>노래와 이야기를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해 보자.

1. <서동요> 노래에서 현재 시제로 표현된 부분을 찾고 이를 미래 시제로 바꾸어 보자.
2. 현재 시제로 표현된 부분과 이를 미래 시제로 바꾼 부분을 서로 비교한 후 느낌을 말해 보자.
3. 왜 서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노래로 만들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를 ‘현재 시제의 기능’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

위의 활동뿐만 아니라, 향가 <서동요>에 쓰인 ‘현재 시제의 기능’을 활용해서 현대의 대중가요를 비판적으로 수용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학습활동도 구안할 수 있다.<sup>36)</sup> 이 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식 역시 ‘현재 시제의 기능’이다. 활동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6) 이 학습활동의 근거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 포함된 “[7-문학-(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라는 성취 기준을 들 수 있다. 고전 시가에 해당하는 향가<서동요>의 시적 표현 효과가 ‘현재 시제의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현대의 대중가요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시어와 노랫말이 일상어와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측면에 기여한다.

[표 7] 수행 범주 활동2

◎ 다음은 ‘일탈’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노래를 듣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일탈 (자우림)<sup>37)</sup>**

매일 똑같이 굴러 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뭐 화끈한 일 뭐 신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신도림 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아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훌쩍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벗고 조깅을/ 아이야이야이야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신도림 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아이야이야이야이야! 모두 원해 어딘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뭔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 나도 원해

1.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시제의 기능’을 활용해서 찾아보자.
2. 노래 가사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알맞은 서술어를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로 써 보자.
3. 2의 결과 중 어느 것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소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선택해 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드라마 <서동요>를 제재로 한 학습활동은 크게 ‘향가 <서동요>의 전승담에서 서동의 소망이 드러난 부분 찾기’, ‘드라마 <서동요>에서 서동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재현 방식 찾기’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이 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식은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와 ‘영상언어의 인물 표현 방식’이다. 학습활동이 모두 향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의 내용 그리고 드라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유는, 이를 통해 ‘매체 변환’으로 인해 ‘재현’된 매체언어의 표현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체언어의 ‘복합양식성’을 동시에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비교 분석’의 방식으로 활동을 구성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37) 자우림(1997), 『일탈』, 『Purple Heart』, T Entertainment.

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수행 범주 활동3

◎ 드라마 <서동요>의 일부를 본 후, 앞 단원에서 배운 <서동요>노래 이야기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서동요> 노래 이야기에서 선화 공주에 대한 서동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2. 드라마 <서동요>에서 선화 공주에 대한 서동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영상언어의 표현 요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서동의 행동	
서동의 표정	
배경 음악	

3. <서동요> 노래 이야기에서는 ‘서동’이 중심인물이지만, 드라마 <서동요>에서는 ‘선화공주’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드라마에서 ‘선화공주’라는 인물이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찾아보자.<sup>38)</sup>

영상언어의 표현 요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선화공주의 행동	
선화공주의 표정	
배경 음악	

38) 이 활동은 드라마 <서동요>에서 부각된 ‘선화공주’의 인물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구안되었다. 드라마 <서동요> 4회에서 보이는 ‘선화공주’의 인물 이미지는 향

### 3.3. 태도 범주

태도는 언어의 속성 가운데 정체성(identity)과 연관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답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태도는 그가 지닌 정체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김대행, 2002b:24). 태도는 크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인지적 요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이라 할 수 있는 행동적 요소로 인해 태도를 교육의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행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경우 태도의 개념은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되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 정의된다. 이는 태도의 학습성과 지속성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대상에 대한 호오(好惡) 경향의 선택’이다. 즉, 이 논의에 따르자면 학습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 좋고 싫은 경향을 학습하여 ‘선택’하며, 이에 따라 일관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요소는 태도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는 측면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태도의 교육 내용을 어떤 대상 및 상황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안하였다. 이는 ‘서동의 거짓말 유포에 대한 태도 정하기’와 ‘서동의 소망을 영상으로 재현한 방식에 대해 자신의 태도 정하기’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서동의 거짓말 유포에 대한 태도 정하기’란 선화공주와 결연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연을 맺은 것처럼 노래 가사를 지어 유포시킨 서동의 행위에 대해 학습자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지 선택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 때 선택항은 ‘서동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와 ‘서동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서동의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지닌다’로 구조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가 <서동요>와 그 전승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를 인지함은 물론 ‘매체 변환’의 과정에서 ‘원작 텍스트와 인물 표현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표 9] 태도 범주 활동1

◎ <서동요>노래의 가사를 볼 때, 서동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서동이 거짓말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글로 표현해 보자.

1	서동의 행동은 이기적이다.
2	서동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3	서동의 행동은 지혜롭다.
이유	

2. 자신이 선택한 항목과 그 이유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또 친구들이 선택한 항목과 그 이유를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토론해 보자.

다음은 ‘소망의 영상적 재현’과 관련한 활동 내용이다. ‘서동의 소망을 영상으로 재현한 방식에 대해 자신의 태도 정하기’란 ‘서동의 소망’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현’한 드라마 <서동요>의 영상언어의 표현 방식에 대하여 학습자가 ‘적절성’을 준거로 해서 자신의 태도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10] 태도 범주 활동2

◎ 다음은 드라마 <서동요>의 극본을 쓴 작가의 인터뷰이다. 이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Q : 드라마 서동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 서동요라는 드라마는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갈등이 심하고, 당시 백제와 신라도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 적국의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렬한 러브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Q : 서동요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들은요?

A : 첫 번째로는 러브스토리를 많이 전해드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왕의 이야기인데 이전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만 왕이 되는 이야기를 주로 봤었는데, 서동요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왕의 성공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서동요> 노래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은 작가의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글로 표현해 보자.

1	달라진 부분은 작가의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달라진 부분이 작가의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3	달라진 부분은 작가의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이유	

2. 자신이 선택한 항목과 그 이유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또 친구들이 선택한 항목과 그 이유를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토론해 보자.

### 3.4. 경험 범주

경험은 언어의 속성 가운데 의미(meaning)와 연관된다. 때문에 인간에게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정서 상태에 이르는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stimulus)이 된다(김대행, 2002b:24). 이를 전제로 한다면,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학습자에게 있어 ‘가치 있고 유의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으로 ‘현재 시제의 기능과 영상언어의 특성 및 인물 표현 방식을 활용한 영상언어 생산’ 활동을 구안하였다.<sup>39)</sup>

39) 이 활동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영역에 속한 “[9국01-09]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구안하였

‘현재 시제의 기능과 영상언어의 특성 및 인물 표현 방식을 활용한 영상 언어 생산’은 앞에서 논의했던 지식, 수행,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을 모두 종합하는 활동이다. 지식, 수행,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이 ‘수용’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이 활동은 ‘생산’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sup>40)</sup> 영상언어 텍스트의 생산 활동을 학습자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앞의 교육 내용에서 다루어졌던 매체언어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매체언어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힘과 관련 있는 복잡한 관계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론이나 지식으로 배우기 어려운 매체언어의 소통과 관련된 한계 및 문제 상황을 스스로 경험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최미숙, 2007b:257-259). 그러나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성찰적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성적 성찰이 결여된 매체언어 생산 활동은 기계적인 반복 혹은 단순한 흥미 유발에 그칠 우려가 크다. 단순히 도구 차원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매체에 의한 매체언어 교육’이 아니라, 매체를 거쳐 매체 생산자를 읽고 다시 사회와 문화를 읽게 하는 ‘매체를 통한 매체언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찰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최병우 외, 2000:8-11). 이를 전제로 하여 구안된 활동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경험 범주 활동

◎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다. 본고의 교육 내용인 ‘현재 시제의 기능’과 ‘영상 언어의 인물 표현 방식’은 광고의 언어 표현과 이미지 구성 측면에 효율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 구성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 40) 국어교육 내용 영역에서 ‘경험’ 범주는 그 근간에 놓인 언어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수행’ 범주와 분명하게 구분된다. 언어의 ‘수용’ 측면을 다루는 ‘수행’에서와 달리 언어의 ‘생산’ 측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 범주라는 점에서 그렇다. 현행 국어 교육과정의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은 총체적 언어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학습의 과정에서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 자신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현재 시제의 기능’을 활용하여 문자 언어로 표현해 보자.
2. 1.에서 표현한 자신의 소망이 잘 드러나도록 영상언어로 바꾸어 표현해 보자.

(조건)

1. ‘행동’, ‘표정’ 등 영상언어의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2. 어떤 의도를 지니고 어떻게 영상언어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

## 4.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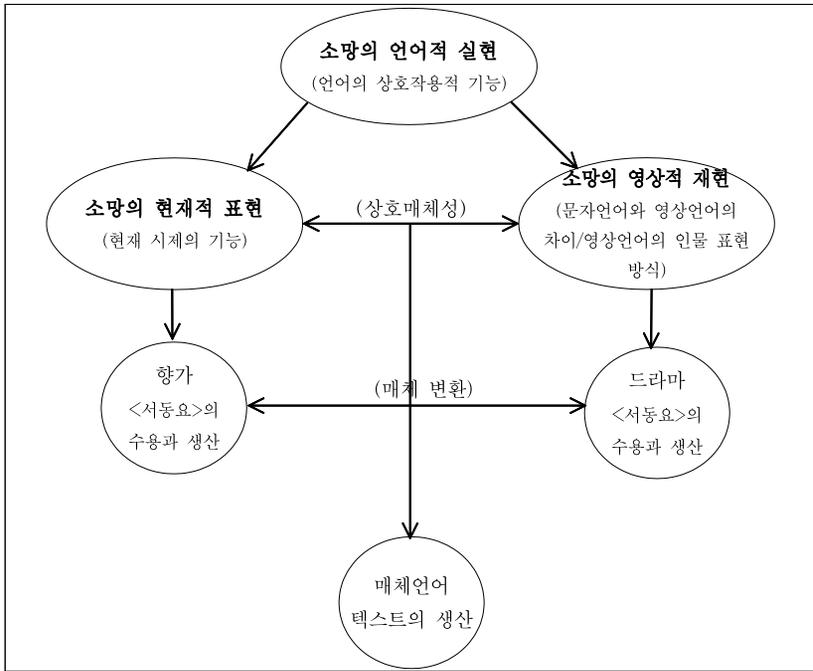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어과의 기존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와 ‘매체언어 교육에서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어떻게 교육 내용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기존 내용 영역과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통합하기 위해 언어의 ‘대기능’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대상으로 문자언어 차원에서는 ‘언어형식’이, 매체언어의 차원에서는 ‘언어양식’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음을 밝혀 보았다. 본고에서는 언어의 대기능 가운데 상호작용적 기능에 해당하는 ‘소망의 언어적 실현’을 통합의 매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양상인 ‘소망의 현재적 실현’과 ‘소망의 영상적 재현’을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교육적 의의와 내용을 도출하였다.

둘째, 매체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현하기 위해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활용하였다.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은 인간의 ‘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적 대상에 대한 인간의 태도(정서)’를 의미하는 심미성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서동의 소망’을 주제로 하는 향가 <서동

요>와 그 전승담 그리고 드라마 <서동요>를 ‘심미적 텍스트’로 규정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 및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현해 보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매개로 한 통합적 국어교육의 내용 구성



국어교육은 언어 교육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도입된 ‘매체언어’의 내용도 언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언어를 통해 ‘형성’ 및 ‘소통’되는 인간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구안해야 한다.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유통시킬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원리’를 개발하는 것은 다매체시대 국어교육의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의 특징인 총체성,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매체언어의 교육 내용, 나아가 국어교육의

내용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절’의 방식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인간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텍스트’를 국어교육의 중요한 ‘제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는 이러한 국어교육의 세 지평을 구체적으로 지향해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교육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5].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국립국어원 편(2008),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국립국어원.
- 박미현 외(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박삼서·이인제 외(200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Ⅱ 국어』,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최형용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 2. 논문 및 단행본

- 고영근·구분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대행(1997),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2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_\_\_\_\_(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02a),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 25, 청람어문교육학회.
- \_\_\_\_\_(2002b),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봉순(2007), 「국어교육에는 어떤 문법이 필요한가: 시제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6, 한성어문학회.
- 김종진(2004),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서보영·박진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교과서 비교 연구 -‘매체 언어’의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7, 국어국문학회.
- 서철원(2006), 「서동요 전승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고시가연구 17, 한국고

시가학회.

- 신언호(2006), 「한국어 현재 시제의 다의적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 윤여탁(1998), 『시 교육론 II : 방법론 성찰과 전통의 문제』, 서울대 출판부.
-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 출판부.
- 이삼형(2000), 「문학과 말하기의 랑데부와 도킹」, 문학과 교육 11, 한국교육미디어.
- 이성영(1998), 「교육문법의 체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 국어교육학회.
- 이승남(2007), 「향가 주술성의 담론층위와 현실적 의미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38, 한국사상문화학회.
- 이용주(1995),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본질과 비본질」,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대 출판부.
-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기(2006), 「국어과 국민 공통 교육과정 개정안」,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이흥우 외(2003), 『교육과정이론』, 교육과학사, pp.495-497.
- 임기중(1981),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 \_\_\_\_\_(2002), 『옛 노래 시로 읽기』, 이회문화사.
- 임칠성(1998), 「시제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 국어교육학회.
- 조희정(2006),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7),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주세형(2005a),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5b), 「‘내용’ 과 ‘방법’ 으로서의 국어지식 영역의 역할」, 한국초등국어교육 2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 주창윤(2003), 『영상 이미지의 구조』, 나남.
- 최병우 외(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 최미숙(2007a), 「미디어 시대의 시 텍스트 변화 양상과 시 교육」, 문학교육학 24, 한국문학교육학회.
- 최미숙(2007b), 「매체 환경에 따른 국어교육의 변화 :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
- 한용환(1999),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 Berns(1990), M., Contexts of Competence, Plenum Press.
- Eggin(199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Grammar, Pinter Publishers.
- Halliday(1994), M.A.K.,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 Thompson(1996),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Arnold.

【Abstracts】

A Study on the Contents of Integra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a medium for the interpersonal function of language

Jeon, Hansung · Min, Ji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cont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integrates the existing content areas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contents of the media language education by means of the 'interpersonal function of the language'. First, the macrofunction system of language was utilized to integrate existing content areas with the contents of media language education. 'Linguistic realization of wish' corresponding to interpersonal functions in macrofunction system of language is set as the medium of integratio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contents were derived by setting 'present realization of wish' and 'imaging reproduction of wish' which are aspects of realizing this in detail as target of education. Second, In terms of media language education, 'interpersonal functions' of language were utilized to implement 'acceptance and production of aesthetic text' as the content of education. The interpersonal function of language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aestheticism, which means human sentiment toward aesthetic objects in that it values human attitudes. Therefore,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theme of 'Wishes of SeoDong' was defined as 'Aesthetic text' by SeoDongyo as Hyangga, folktales associated with it and SeoDongyo as drama. In addition, The knowledge and activities required to actively accept and produce these were derived as the content of education.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personal function, Literature,  
Grammar, Media Language, content integration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